

## News

### 주담대 금리 7% 초읽기...7·8월도 기준금리 오른다

데일리안

4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 연 4.280~6.810%로 상단이 7%에 근접... 6개월 만에 하단 0.68%p, 상단 1.832%p 증가  
변동형 금리는 고정정보다는 상승폭이 완만하지만 연내 6% 돌파할 것으로 보여...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긴축 계획 발표에 시장금리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 카카오뱅크, 14일부터 신용대출 신규 대출 재개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8개월만에 신용대출 신규 대출 재개... 금리는 연 3.148~6.424%로 최대 한도는 1억원  
일별 신규 신청건수에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 사측은 실수요자 중심 대출 공급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혀...

### 신한금융,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투자 잠정 중단

이데일리

신한지주, 코빗에 대한 투자 검토 잠정 중단...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  
테라-루나 사태로 당분간 금융사의 거래소 지분 투자 시도가 주춤할 것 예상... 다만 금융 규제 혁신안에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포함되어 업계 기대감 높아져...

### 은행점포 축소에 대여금고 사용 '별따기'

서울신문

지난달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수 40만 5,175개... 5개월 만에 7,517개 감소... 은행 점포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  
영업점 규모마다 다르지만 통상 한 개 영업점에 대여금고는 50~100개 정도 비치... 그간 우량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대여금고 제공해와...

### 대형손보가 독식한 CM채널...삼성·현대·DB·KB 비중 98%

CEO스코어데일리

1분기 주요 손보사 10곳의 CM채널 원수보험료 1조 5,5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 회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 여전  
주로 대형사에 쏠리는 모습...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4개 대형사의 CM채널 원수보험료가 전체의 98% 차지... 중소형 손보사들은 오히려 감소

### 거리두기 해제로 車보험 손해율 다시 '꿈틀'...시름 커지는 손보업계

시사저널이코노미

자동차보험 판매하는 11개 손보사들의 4월 기준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 약 82.3%로 전월비 9.1%p 상승...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인한 손해를 악화 피하지 못해...  
5월 나들이, 6월 이후 여름 휴가 및 장마철 등 외부 활동 본격화로 차량 운행량과 사고율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보험료 인하 조정 반영과 맞물려 실적 악화 가속화 우려

### 세컨더리를 보는 엇갈린 시선... '폭탄 돌리기' VS '절호의 찬스'

이데일리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 CIO가 "세컨더리 거래에서 폰지가 의심된다"는 말로 논란 중... 공개적으로 비상장사 밸류 책정에 어려움 겪는 점 근거로 거품 낀 거래 견해를 밝혀...  
국내 PEF펀드 수 총 1,060개로 전년 대비 24.9% 증가... 약정액은 116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 업계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

### 당정, '루나 사태 재발 방지' 논의... "5대 거래소, 상장 공통기준 적용"

동아일보

정부와 국민의힘,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썬,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공동협의체 만들어 상장 관련 공통기준 적용키로...  
일단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 규제 강조... 루나 폭락 과정에서 각 거래소 상장폐지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이로 인한 투자자 혼란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